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장 옥 효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24년 2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장옥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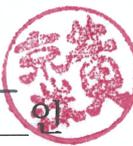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지 도 교 수 김주경

장옥효의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4년 2 월

심사위원장 장 경 수 
위 원 민 경훈 
위 원 김 주 경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Chinese Students to Study in Korea

YuXiao Zhang

(Supervised by Professor Ju-kyong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4.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Dat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
제4절 연구의 흐름도	3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재한 중국 유학생 현황	4
1. 연도별 재한 중국 유학생 현황	4
2. 지역별 재한 중국 유학생 현황	5
3. 과정별 재한 중국 유학생 현황	6
제2절 유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	6
1. 유학의 개념	6
2. 유학의 동기 요인	7
1) 유학 동기	7
2) 내재적 동기	8
3) 외재적 동기	11
제3절 한국의 유학생 지원 정책	1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6
제3장 연구의 설계	19
제1절 연구모형 설정	19
1. 연구모형 설정	19
2. 연구의 대상 및 표본특성	2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측정항목	22
1. 연구의 방법	22
2. 측정항목 구성	22
제4장 실증분석 결과	25
제1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25
1. 기초통계 분석 결과	25
제2절 교차분석 결과	31
1. 성별기준 교차분석 결과	31
2. 나이기준 교차분석 결과	37
3. 유학기간기준 교차분석 결과	47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57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57
2. 다중회귀분석 결과	61
제5장 결론	63
제1절 연구의 요약	63
제2절 정책 재언	64
제3절 연구의 한계	65
참 고 문 헌	67
1. 국내 문헌	67
2. 해외 문헌	69
ABSTRACT	70
【부록】	71

<표 차례>

<표 2-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4
<표 2-2> 2017년-2022년도 중국 유학생 수	5
<표 2-3> 2022년도 과정별 재한 중국 유학생 수	6
<표 3-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표 3-2> 측정항목	23
<표 4-1> '유학 동기' 설문 결과	25
<표 4-2> '문화적 요인' 설문 결과	26
<표 4-3> '가족과 친구요인' 설문 결과	26
<표 4-4> '유학의지동기요인' 설문 결과	27
<표 4-5> '교육의 질 요인' 설문 결과	28
<표 4-6> '경제성 요인' 설문 결과	28
<표 4-7> '지리적 요인' 설문 결과	29
<표 4-8> '취업 요인' 설문 결과	30
<표 4-9> 유학 결정 동기와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31
<표 4-10>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32
<표 4-11> 가족과 친구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32
<표 4-12> 유학 의지 동기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33
<표 4-13> 교육의 질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34
<표 4-14> 경제성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35
<표 4-15> 지리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35
<표 4-16> 취업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36
<표 4-17> 유학 결정 동기와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37
<표 4-18>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38
<표 4-19> 가족과 친구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39
<표 4-20> 유학 의지 동기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41
<표 4-21> 교육의 질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42

<표 4-22> 경제성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43
<표 4-23> 지리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45
<표 4-24> 취업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46
<표 4-25> 유학 결정 동기와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47
<표 4-26>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48
<표 4-27> 가족과 친구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49
<표 4-28> 유학 의지 동기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50
<표 4-29> 교육의 질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51
<표 4-30> 경제성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53
<표 4-31> 지리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54
<표 4-32> 취업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55
<표 4-33> 신뢰도 검증 결과	57
<표 4-34>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9
<표 4-35> 상관관계 분석 결과	60
<표 4-36> 다중회귀분석 결과	6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
<그림 2-1> 지역별 재한 중국 유학생 분포도	5
<그림 3-1> 연구분석 모형	19

국 문 초 록

전 세계적으로 유학 붐이 일면서 유학은 점차 광범위한 선택 학습 방법이 되었다. 중국 유학생 그룹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제 유학의 보급 추세를 반영한다. 한·중 교육협력이 심화되면서 중국 학생들이 유학 선택지를 넓혔고, 한국의 고등 교육기관도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학 결정은 개인·가정·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한 과정으로, 특히 중국 유학생의 경우 한국을 유학지로 택한 결정 요인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고려될 수 있다.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이 늘면서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한국의 유학 목적지로서의 매력과 독특함을 연구하는 것은 유학 서비스와 국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학 결정 이면의 동기에 대한 깊은 인식을 제공하여 유학생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유학 체험의 질을 향상시키며, 중한 교육 분야의 상호 이익을 촉진하고, 중국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그룹의 유학 동기 이면의 핵심 요소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한·중 교육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간 문화이해와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재한 중국 유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독립변수로 '문화적 요인', '가족과 친구 요인', '유학 의지 동기', '교육의 질 요인', '경제적 요인', '지리적 요인', '취업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유학 결정 동기'를 설정하고 다중회귀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업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과 친구 요인은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취업 요인이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중국 유학생, 한국 유학, 결정 동기, 한·중 교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세계화와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이민 방식과 달리 유학생들은 새로운 국제 이민 방식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명을 넘어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45% 가까이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교류가 늘면서 미국과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학비,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문화 정체성, 취업 경쟁력, 한류 영향으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인 학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매우 안전한 나라이다. 중국 학생들이 안심하고 유학할 수 있고, 한국 대학의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중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적 동기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는 중국과 한국 간 교류 및 유학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적 동기를 탐색하고,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 동기와 의사결정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연구목적의 실현을 통하여 중국 유학생이 한국유학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동기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이 중국 유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유치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중유학교류와 협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결정적 동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유학생을 선택한 이유

는 한국 유학생 집단 중 중국 유학생 비중이 가장 높아 중국 유학생의 유학 동기를 분석하고 연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 정성적 연구의 방법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모델을 수립하고 설문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결정적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중회귀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신뢰성 검증, 요인분석, 상관분석, 기초통계분석, 교차분석을 병행하였다.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적 동기를 탐색하고,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 동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와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결정 동기 파악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유학을 선택하게 된 결정 동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와 고려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요인이 유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2. 유학 동기에 대한 이해 증진

중국 유학생의 설문지와 다중회귀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국학생들의 한국교육체계, 문화환경, 직업발달기회 등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보다 포괄적인 연구성과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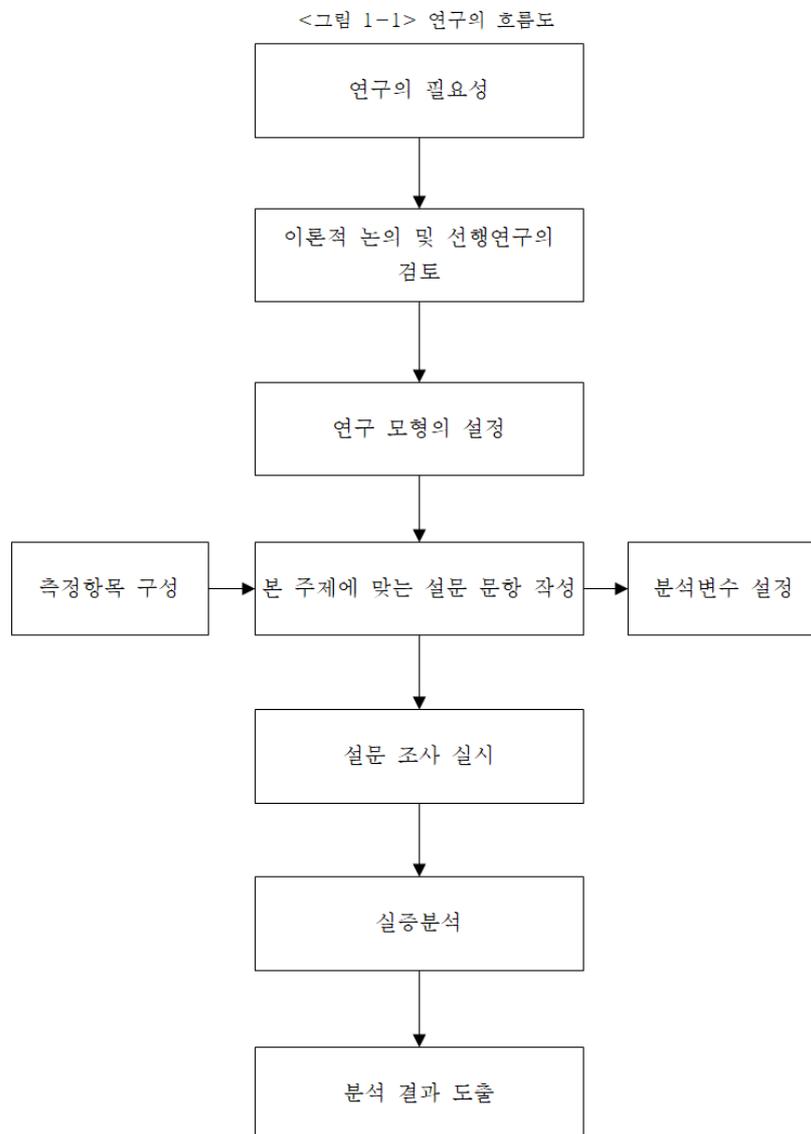
3.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촉진

연구 결과는 한국 고등 교육 기관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유학 프로그램과 학생 모집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유학생의 수와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과정을 더욱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한중 교육 교류와 협력 촉진

연구 결과는 한중 교육 교류와 협력의 기초와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중한 양국의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성과 협력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학술 협력, 학생 교류 및 연구 협력 프로젝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제4절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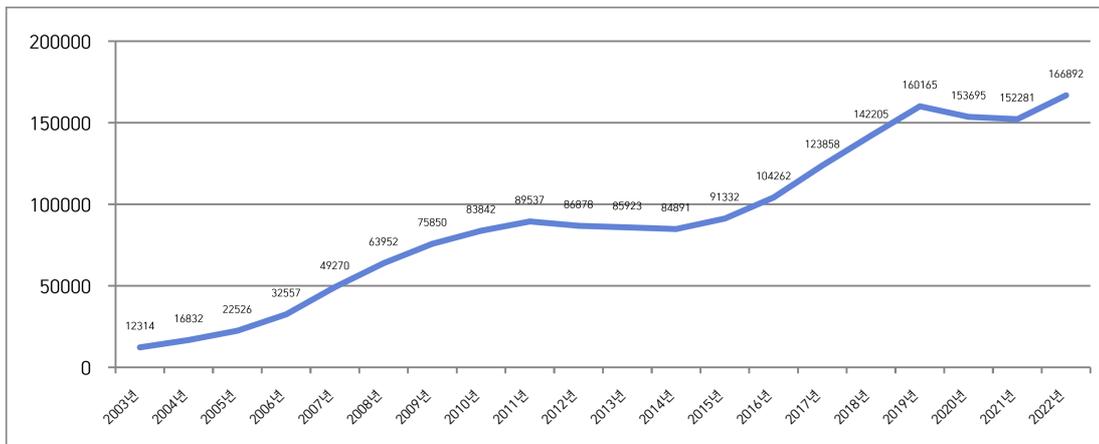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재한 중국 유학생 현황

1. 연도별 재한 중국 유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의 '2022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결과, 어학연수 및 기타 연수와 학위과정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6만6,892명에 달했다. 유학생 수는 2004년에 비해 2022년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매년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폭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단위: 명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인 유학생은 68,184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55.1%를 차지했다. 2018년 중국인 유학생 총수는 68,537명(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8.2%)이었다. 수치상으로는 2017년 이후 중국인 유학생 증가폭이 둔화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중국인 유학생은 총 71,067명[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46.7%], 2020년 67,030명, 2010년 67,348명, 2011년 67,439명으로 조사됐다.

<표 2-2> 2017년-2022년도 중국 유학생 수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국 유학생 수	68,184	68,537	71,067	67,030	67,348	67,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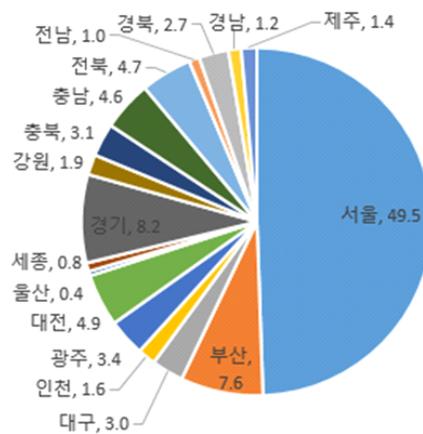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단위: 명

2. 지역별 재한 중국 유학생 현황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국인 유학생의 49.5%(3만5,152명)가 서울 지역에 있다. 다음으로 경기 8.2%(5,830명), 부산 7.6%(5,396명) 등 중국인 유학생이 많았다.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비교적 발달된 도시를 택해 학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다른 지역을 택해 학업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제 학생 파견 상위 10개국은 중국·인도·베트남, 독일·미국·프랑스·한국·네팔·카자흐스탄·브라질이며, 이 중 6개국은 아태 국가이며, 이 중 중국이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 수는 108만 8,000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중국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 전체의 0.6%로 약간 줄었다.

<그림 2-1> 지역별 재한 중국 유학생 분포도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단위: %

3. 과정별 제한 중국 유학생 현황

현재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입국과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어학연수, 기타 연수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전문 분야는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교육부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 분야 중국인 유학생 수는 39,946명, 예체능 분야 중국인 유학생 수는 13,267명이다. 다음으로 공학 분야 중국인 유학생 수가 4,813명, 자연과학계 2,355명, 의학계 140명이었다. 수치로 보아 절대다수의 중국 유학생들이 문과 영역의 공부에 치우쳤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예술 영역을 선택하였다.

<표 2-3> 2022년도 과정별 제한 중국 유학생 수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어학연수	기타 연수	계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39,946	4,813	2,355	13,267	140	4,324	2,594	67,439

출처 : 교육부(2022)

단위: 명

제2절 유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유학의 개념

유학(overseas study)은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외국의 학문·기술 등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유학은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것이다. 중국 청나라 때 출양(出洋)이란 말은 멀리 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는 것을 의미했고, 현재 유학을 출양유학(出洋遊學)이라고 불렀다(팽호낙, 2022). 유학(overseas study)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 따르면 외국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정해진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학습, 연구 또는 기술 연수를 할 수 있다. 유학은 자비유학과 국비유학으로 나눌 수 있다(주도연, 2011). 유학생은 외국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연수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들은 해당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위과정이나 특정 학업목표를 이수하고 귀국 전 학업

을 미치는 것이 전체다(ZOU ZHEN DONG, 2009). 다른 기관과 법규에 따라 '유학생'의 정의는 다양하다. OECD는 2018년 보고서에서 'international studen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을 말하며, 이들의 주된 목적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시민권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또 다른 흔한 용어는 "foreign students"인데, 이 용어는 학생의 국적 신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윤주 외, 2022). 유학 동기(Study abroad motivation)는 지금까지 정확한 정의가 없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유학 동기는 한 사람이 해외 유학을 결심한 이유나 동기를 말한다. 유학 동기는 내재적으로 자기 향상과 성장을 추구하거나, 외적으로 더 나은 교육과 직업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은 외적인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기를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 동기는 외적 보상을 할 때 발동기를 유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 동기는 기능향상, 환경탐구, 신기함 습득, 도전 추구의 경향성에 의해 발생하는 동기이다(Ryan & Deci, 2000). 그래서 유학 동기는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 교육 기회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의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지심, 2010).

2. 유학의 동기 요인

1) 유학 동기

동기는 유기체의 행동을 자극하고 유지하며 행동을 특정 목표로 이끄는 심리적 경향 또는 내부 추진력이다. 미국 심리학자 우드워스가 1918년 심리학에 처음 적용하였으며 행동을 결정하는 내재적 동력으로 꼽힌다. 동기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정지심(2010)은 동기의 개념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이끄는 내부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고, 유학 동기를 다른 나라에서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의 역량으로 정의했다. 윤새은임(2019)은 자국을 떠나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심리적 이유와 욕구 충족, 행동 원동력을 모색하였다. 유학 동기 분석은 유학 결정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의사결정이 주관적인 자율성이나 외부의 강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학은 일종의 자기 선택 과정으로서,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부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潘昆峰·蔣承, 2015).

외부 동기는 금전, 명예 또는 칭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같은 외부 보상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동기를 말한다. 내적 동기는 개인의 흥미, 호기심, 탐구욕구, 성취감, 자아도전과 같은 내부 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이러한 동기는 임무 자체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내재적 보상과 자아 목적감은 내재적 동기의 중요한 특징이다(이민희·정태연, 2008). 장암(2012)은 유학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수요는 개인의 교육적 욕구에 비해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요한 동기로 꼽았다. 사립대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장래 취업을 위해서'라는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학위를 따고 싶어서', '국제화 기대에 맞는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는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 사립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국립대보다 '외국어 공부나 외국어 능력 향상' 동기 부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유리나(2012)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학 동기는 심화 전공 과목 학습, 다양한 문화 체험, 자신의 식견 확대 등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에 따라 유학 동기가 달라진다. 유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 과정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교환학생들에게는 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유학을 택했다. 따라서 연구 대상에 따라 유학 동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황경아·홍지아(2018)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 유학의 합리성은 부모의 재무력과 조언, 한류 문화의 영향, 영어 학습 스트레스, 한국 취업 기회 등에 의해 뒷받침됐다.

2) 내재적 동기

가. 문화적 요인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한국 유학이라는 문화적 유인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흥미와 어학 학습을 포함하게 되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중한 양국의 문화는 서로 통하고, 유교 사상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문화 교육 이념, 전통 습관, 음식 문화에는 모두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다. 한류(Hallyu) 현상과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 트렌드가 되었으며, 한국 유학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패션 등의 방면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의 진원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윤상일 외(2011)의 연구에서 한류가 단순히 한국 토종 문화로 간주되는 지역 현상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에서 한류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화의 창조자, 전파자가 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문화정서와 가치관이 맞물려 아시아인들이 대중문화를 독창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양국 간 교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 브랜드의 가전제품·자동차·화장품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과 한국 대중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며 '한류' 현상을 일으키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한류 현상도 제품 홍보와 시장 개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김형재·최욱 2012).

언어문화는 영어권에 비해 한국어가 세계에서 소어종 반열에 속해 향후 용도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한국의 어학당에 와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어학원 시절 한중 유학생의 유학 과정에서의 '첫 방문'은 유학 과정 전반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 시기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과 학교 입학의 발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 생활 전반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여 후속 유학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LUO JUNJIAN, 2022).

나. 가족과 친구 요인

중국의 교육 악조건 하에서,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길을 가기를 바란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를 해외로 보내 유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더 좋은 교육을 얻을 수 있고, 유학생으로서 귀국하여 발전하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조은(2004)의 연구는 한국의 중상류층 가정의 기러기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가족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밝혀냈다. 이 가족 구성원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어린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기러기 가족의 욕망은 자녀가 국제 대학교육에서 얻는 사회 계급 상승과 재생산 효과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중산층이 쇠락하는 것을 지켜본 부모들은 자녀의 조기 유학이나 계급 안정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부모의 지원과 친구의 추천은 모두 유학 동기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족 지원의 목표와 가족 시스템의 유지는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부모의 지지와 격려 및 도움행동은 자녀의 진로탐색을 촉진하고 직업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강화요인으로 작용한다(김지현 외, 2007).

유학생이 친구와 함께 유학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는 동반자 지원, 문화 공감, 언어 학습, 생활비 분담, 안정감이 꼽혔다. 친구 간의 지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나 취미를 공유하면 친구들이 같은 유학지를 선택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느낌 가질 수 있다. 같은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로 한 친구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언어 연습을 하며 잘못을 바로잡고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다. 또 친구끼리 공동 임대, 공동쇼핑을 선택해 생활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낯선 나라에서 유학하는 것은 불안할 수 있지만 친구가 있으면 안정감을 높일 수 있고, 서로 간의 지원과 보살핌은 유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孔晴·崔娟华, 2019).

다. 유학 의지 동기

다른 외부요인에 비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학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외국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전공을 배우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김홍수와 이상직(2019)의 연구는 유학 동기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하고, 내적 동기는 새로운 인생 도전, 더 나은 취업 기회, 외국인 친구 사귀기, 유학국 문화 경험으

로 구성했다. 유학의 내적 동기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유학의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 등급이 높았다.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학위를 받아 사회적 신분을 높이고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학 동기와 취업 동기의 관계에서는 유학가 현저한 결과를 나타내 취업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유학의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취업동기 등급이 높아진다. 새로운 인생 도전을 맞이하고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내재적 동기가 한국의 취업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반영한다.

3) 외재적 동기

가. 교육의 질

교육의 질은 중국 대학이 중국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품질이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김형재·최욱 2012). 한국 유학을 선택한 중국 유학생들은 모두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며 입학의 간편성과 비자취급의 용이성 모두 유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더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물론 교육의 질은 특히 중요하다.

최영옥·이상휘(2006)의 연구중에서 2000년부터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대학의 매력은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과 문화·경제·정치적 교류가 긴 나라답게 최근 몇 년간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중국 학생들이 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과거의 제약을 해소·약화하고 선택적 투명성을 갖춘 교육장벽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방형 교육을 기반으로 한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혁은 교육 공급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동반해 교육의 생산성을 높였다. 학생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교육환경과 제공되는 교육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대학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대학은 외국인 학생에게 매력적이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문화적 차이와 그 밖의 다양한 차이에도 직면해 있다.

고품질 교육은 개인이 학문과 직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돕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배양하고, 사회 과학 기술 및 문화 진보를 촉진하고, 평등하고 고품질의 교육은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 문화와 가치관을 계승하고,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을 잘 받은 개인은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교육의 질은 사회 진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관건이다.

나.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유학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말하며, 대상 유학 국가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숙박비, 생활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유학생들은 자기 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를 선택한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유학 비용이 유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유학 국가 선정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유학생들은 유학 국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교내 근로장학금을 받는 등 근로활동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활동의 기회는 유학생들의 유학 국가 선호와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김형재·최욱 2012). 한국 유학은 구미 국가 유학에 비해 훨씬 적은 유학 비용이 든다. 구미 유학을 가는 중국 유학생도 있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중산층 가정들이 교육의 질 역시 세계 일류인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오수연(2009)의 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이 대학을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수학 비용과 재정 지원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수학 비용이 대학 선택의 제약 요인이 될 때 재정 지원 정도가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지원 등 학생들의 선택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고 채프먼은 지적했다. 금전적 수혜가 보장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면 장학금 혜택이 한국 유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보장이 안 되면 한국으로 유학 갈 수 있다고 말했다(황경아·홍지아, 2018).

다. 지리적 요인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양국 간의 교통이 편리하여 한국 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친척 방문과 구직에 유리하며, 유학생 친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도 편리함을 제공한다. 지리적 근접성은 중국 유학생의 유학 국가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속성으로, 중국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유학 국가까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로 정의한다(김형재·최욱 2012). 한중의 지리적 근접성은 양국의 유학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김미희, 2011). 지리적 근접성은 생활비를 낮출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면 유학생들이 비슷한 음식, 상품,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 지리적 근접성은 흔히 문화적 유사성을 나타내는데, 한국을 선택하면 문화적 충격과 적응의 어려움을 덜고 유학생들이 현지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교통이 편리해 유학생들이 쉽게 한국을 떠날 수 있고, 비행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잦은 귀국이나 급한 용무 처리가 필요한 유학생들에게 중요하다. 또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양국 지정학적 관계가 유학생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에서 유학생들은 상대국을 선호하고 반대로 다른 곳을 고려할 수도 있다.

라. 취업 요인

유학생들이 귀국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는 취업이 어렵거나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급 인력의 국내 미복귀는 인재 유출뿐 아니라 국가 물적 자원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귀국 후 충분한 근로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나은 근로조건과 환경을 갖춘 외국에 머물 수 있다(팽호낙, 2022).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하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일하거나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 첫째, 한국의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둘째, 언어문화에 대해서도 해결하며, 한국에서의 공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까지 갖추게 된다. 이것은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관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허재준 외(2011)에 따르면 한국에 오래 머물수록 한국 취업의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유학생들이 취업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은 자국의 경제 수준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지원제도는 유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전문 취업 부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훈련 제도 등을 포괄한다(김형재·최옥, 2012).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의 주된 목적은 취업이며, 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한국 대학 학위보다 더 중요하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개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의 중국 유학생 취업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학생 개개인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잠재적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 대학을 선택하는 동력으로 이어져 학교의 명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다(장암, 2012). 그래서 유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력을 쌓고 졸업할 때 한국에 남아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제3절 한국의 유학생 지원 정책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와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범위를 넓혀 세계적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여 왔다. 교육과학기술부(2022년)에 따르면 출생 국가별로는 중국(67,439명), 베트남(37,940명), 우즈베키스탄(8,608명), 몽골(7,348명), 일본(5,733명), 미국(3,369명) 순이다.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40.4%를 차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국가 간 대학 간 교류를 촉진하면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 학생 유치의 주요 동력 중 하나다(김정훈·박정민, 2012). 고등 교육 시스템의 높은 질과 연구 수준은 외국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이다(劉巍, 2010).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2000년부터이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연구는 많지 않다. 또 한국에서 거주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선행 연구를 진행하려면 외국인 유학생 도입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한다(오수연, 2009; 한영옥, 2007; 박찬운, 2009).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은 2004년 한국 정부가 처음

으로 세운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8만 7,000명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이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GKS)도 한국으로 초청해 2020년까지 2,00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단순히 유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학생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제정했다. 이 법규는 대학의 업무 표준화를 요구한다. 또 정부는 2009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 제재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을 보다 잘 관리하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 실적이 없는 대학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10년 정부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들이 귀국할 때까지 관리하고 우수 유학생 졸업생을 다시 초청하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같은 해 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정책을 제시해 한중일 3국 학생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11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유학생과 교육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 발표 이후 세 차례 계획(2008년, 2012년, 2015년)을 거쳐 신규 유학생 유치 목표를 세우고 2023년 8월 교육부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인재 유치부터 취업, 정착까지 체계적인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광역단위 접근에 주목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인재 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및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 입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유학생 재정심사 기준을 완화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동시 유학을 허용하고 취업 허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인재유치전략TF' 구성 및 '권역별 한국어센터' 지정, 한국어와 문화교육 강화, 저숙련·비전문근로자 대학학위 취득 허용, 사회부총리 중심의 협의체 구성, 장학금·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한다. 이제 단순히 학업만 마치고 돌아가는 '회귀형' 유학생보다 취업 및 거주하는 '정주형' 유학생이 많아질 것이다(교육부, 202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김형재와 최옥 두 학자는 2012년 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 요인과 한국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만족도와 선택 의도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요인, 국가 인지도, 유학 절차가 한국 유학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반면 지리 접근성과 한류는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대학을 선택하는 요인으로는 대학의 교육 수준, 유학 경비, 유학생 관리 시스템, 유학 중개기관, 대학의 인지도, 취업 지원제, 장학제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 대학의 만족도는 한국 대학을 선택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 인지도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윤새은임(2019)은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동기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테마틱 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한 결과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내적 동기에는 개인적 관심, 경력 발달, 사회적 이유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개인적 관심으로는 한국과 한국인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한자문화권 내 국가인 만큼 언어와 문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력 개발 측면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한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한류 영향, 부모의 권유, 친구 및 선생님 영향, 베트남 사회 분위기 등의 요인이 연구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이 새로운 문화 체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경(2012)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해 아시아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들의 유학 동기와 특성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아시아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는 첫째, 학력 보충이나 새로운 기회 찾기를 통한 제2의 기회, 둘째, 문화 여행을 통한 새로운 문화 경험 충족, 셋째, 한국 유학을 발판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로 진출해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관건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유

학 동기에 차이가 있지만, 세 가지 주요 특성이 서로 겹치는 것은 자비로 한국 유학을 선택한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 인구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비로 한국 유학을 선택한 아시아계 유학생의 가정 배경은 자국 내에서 중산층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층 기반이 낮다.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 아시아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리적 인접성과 아시아 국가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말해준다. 자비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대부분 특정 계층에 속하며 글로벌 지위에서 외국 학위 취득이라는 새로운 문화자본을 택한다. 아시아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유학할 때 얻을 수 있는 자본인 한국어, 한국문화 경험과 학위를 긍정적인 가치로 꼽았다. 한국 유학 선택은 만족스럽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학위가 더 고급스럽고 가치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학위보다 더 매력적이다.

에르덴척트바이가리 외(2023)의 연구는 몽골 유학생들의 자주적 유학 동기와 동문 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상관분석과 변수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 학생들과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주적 동기가 유학 동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미희(2011)는 전북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유학 온 경로와 이유, 학업과 생활, 유학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한류의 영향, 입학 용이성, 부모의 권유, 저렴한 등록금 등이 꼽혔다. 이 밖에 입학이 쉽고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은실(2008)의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실태를 조사해 중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동기를 6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경제발달과 좋은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둘째, 장학금 기회, 국내 대학들은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셋째, 아르바이트 기회, 학부생들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넷째, 어학 과정과 취업 기회, 한국의 모든 대학이 어학 과정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쉬운 취업의 가능성을 높인다. 다섯째, 경제

성 유럽이나 미국 유학과는 달리 한국 유학의 또 다른 매력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중류층인 부모가 자녀를 유학 보낼 수 있다. 여섯째, 외국인 유학을 위한 비자 발급 등도 편리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

김홍수와 이상직(2019)의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등 유학 동기를 분류했다. 내적 동기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더 나은 취업 기회, 외국인 친구 사귀기, 유학국가의 문화 체험 등이 포함된다. 외적 동기는 등록금 및 생활비의 적정성, 지리 접근성, 주변인의 추천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조혁수와 진경태(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어학능력, 유학 동기 등이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꼽혔으며 이들의 영향 순서는 긍정적이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래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내적 동기이고,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취업은 외적 동기라고 볼 수 있다.

ZHANG CHEN(202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은 취업에 유리하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순위, 한·중 관계 과정, 비교육 프로그램, 취업 후 평균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원 유형(전문대학원), 전공(이공계), 부모의 학력 등이다. 비교육적 프로그램은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한·중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한·중 양국 관계에 맞춰 한·중 관계에 대한 커리큘럼을 늘려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취업 때 지원해야 할 기업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면접 합격률도 높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유학생들이 전문 대학원생과 관련된 과정을 더 많이 개설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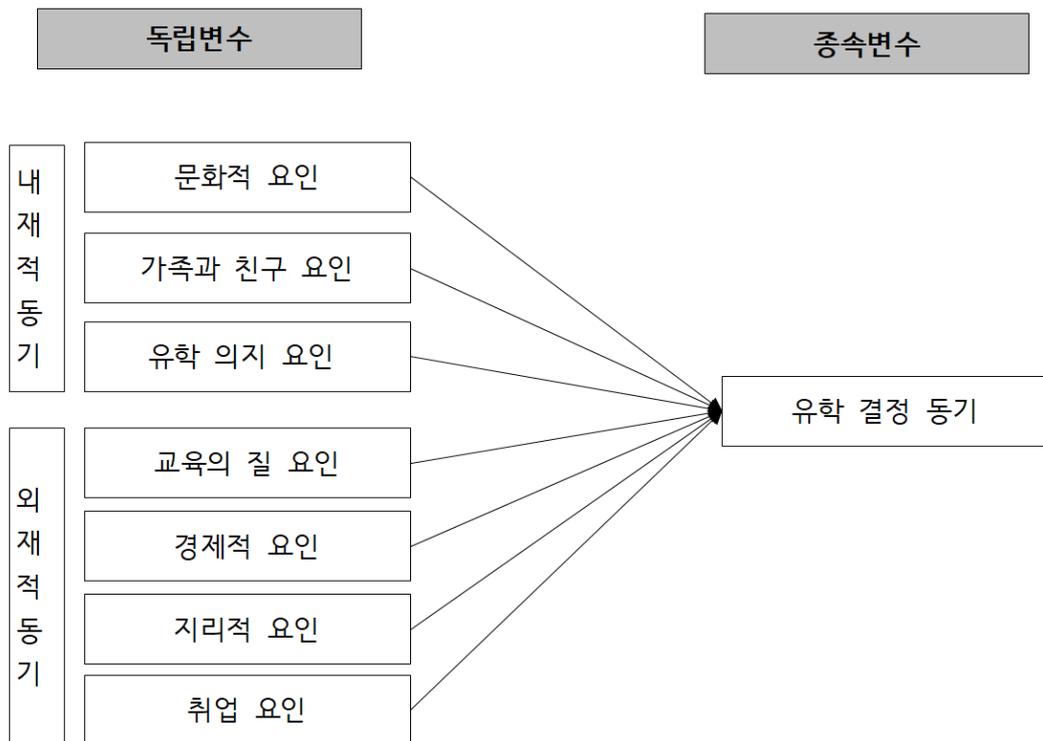
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모형 설정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온 결정적 동기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학 결정 동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문화적 요인, 가족과 친구 요인, 유학 의지 요인 및 교육의 질 요인, 경제적 요인, 지리적 요인, 취업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있어 성별, 나이, 학업상태, 결혼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분석 모형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2. 연구의 대상 및 표본특성

본 연구 실증자료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수행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했다. 설문지 작성 후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사전 설문지의 신뢰성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수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총 355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355개의 설문지를 사용했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은 160명(45.1%), 여성은 195명(54.9%)으로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세 이상 25세 이하이라는 응답이 144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은 3명(0.9%)으로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학력에 대한 설문결과에 보면 본과대학 졸업은 123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과대학 졸업은 104명(29.3%), 고등학교 졸업은 65명(18.3%), 대학원 석사 졸업은 55명(15.5%), 대학원 박사 졸업은 7명(2.0%), 기타 학력은 1명(0.3%)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의 경우 대부분이 미혼이었고, 기혼자 92명(25.9%)이 응답하였다. 유학시 전공분야에 대한 설문결과, 경영계열은 79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사회계열 68명(19.1%), 자연과학계열 36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55)

구분		빈도 (명)	비율	구분		빈도 (명)	비율
성별	남성	160	45.1%	첫 유학 연령	20세 이하	239	67.3%
	여성	195	54.9%		20-25세	93	26.2%
연령	20세 미만	81	22.8%		25-30세	19	5.4%
	20세 이상 - 25세 미만	144	40.6%		30세 이상	4	1.1%
	25세 이상 - 30세 미만	109	30.7%	유학기 간	1년 이하	120	33.8%
	30세 이상 - 40세 미만	18	5.1%		1-3년	152	42.8%
40세 이상	3	0.9%	3-5년		38	10.7%	
학력	고등학교 졸업	65	18.3%		5-10년	45	12.7%
	단과대학 졸업	104	29.3%	전공	인문사회계열	68	19.2%
	본과대학 졸업	123	34.7%		자연과학계열	36	10.1%
	석사 졸업	55	15.5%		공학계열	31	8.7%
	박사 졸업	7	2.0%		예체능계열	28	7.9%
기타	1	0.3%	의학/간호/수의/ 약학계열		30	8.5%	
결혼 상태	미혼	263	74.1%	교육계열 (교육학계열)	31	8.7%	
	결혼	92	25.9%	법학계열	22	6.2%	
자녀 수	없음	48	13.5%	경영계열	79	22.2%	
	1명	21	5.9%	기타	30	8.5%	
	2명	21	5.9%				
	3명	1	0.3%				
	3명 이상	1	0.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측정항목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론으로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analysis)을 수행했다. 또한, 통제 변수로 사용된 변수의 경우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에 대한 실증분석은 물론 변수의 영향을 고찰해 정책 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신뢰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22를 사용하였다.

2. 측정항목 구성

본 연구의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8개의 요인변수와 34개의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8가지 요인변수 중 유학 결정 동기 변수는 4가지 문항, 문화적 요인은 3가지 문항, 가족과 친구 요인은 4가지 문항, 유학 의지 요인은 5가지 문항, 교육의 질 요인은 5가지 문항, 경제적 요인은 4가지 문항, 지리적 요인은 4가지 문항, 취업 요인은 5가지가 있다. 이 조사는 사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문항이며 요인분석과 신뢰성이 낮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설문문항의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①전혀 아니다 ~ ⑤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측정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참고문헌
유학 동기 요인 (4문 항)	A1. 중국의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강병양(2022),
	A2. 중국 대학에는 관심 있는 전공이 없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장암 (2012), ZHANGSHUXI
	A3. 중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N (2019), ZHANG
	A4. 한국 대학의 학위를 따면 중국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JIAZHEN (2020)
문화 적 요인 (3문 항)	B1. 한국 문화(음식, 드라마, 음악등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강병양(2022), 장암 (2012)
	B2.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B3.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가족 과 친구 요인 (4문 항)	C1.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ZHANG
	C2.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라고 요청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SHUXIN (2019),
	C3. 중국학교와 한국학교가 교류협력이 있어 선생님의 권유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ZHANG JIAZHEN
	C4.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2020)
유학 의지 동기 요인 (5문 항)	D1.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강병양(2022), 장암 (2012), ZHANG SHUXIN (2019)
	D2. 독립심을 기르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D3.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D4.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D5.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교육 의 질 요인	E1.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몽아 (2011),
	E2. 한국의 학교의 교육시설 조건은 양호하고 종합 수준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ZHANG JIAZHEN

(5문 항)	E3. 한국의 교육의 교사진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 장암 (2012)
	E4. 유학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원화 되어 있습니까?	
	E5. 한국 대학들은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경제 성 요인 (4문 항)	F1.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암 (2012), ZHANG JIAZHEN (2020), 유몽아 (2011)
	F2.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F3. 생활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F4. 입학 수속은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용이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지리 적 요인 (4문 항)	G1. 한중 양국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장암 (2012)
	G2.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비슷한 점이 많아 유학생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G3.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G4. 재한 중국 유학생은 친척 방문과 구직이 더 편리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취업 요인 (5문 항)	H1.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ZHANG JIAZHEN (2020)
	H2. 중국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H3. 한국에서의 취업은 더 나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H4.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H5. 유학생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아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제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항목별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학 동기' 설문분석 결과(A항목)

첫 번째 질문으로 2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재한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 설문지를 5가지를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의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았다. 두 번째는 중국 대학에는 관심 있는 전공이 없어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았다. 세 번째 중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의 한국 대학의 학위를 따면 중국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했는지 물어보았다. 첫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3.27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3.01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3.21로 나타났다. 네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3.20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항목에서는 대체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동기에서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태도와 고려가 알 수 있다.

<표 4-1> '유학 동기'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1	1. 중국의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7	1.21	1	5
A2	2. 중국 대학에는 관심 있는 전공이 없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01	1.21	1	5
A3	3. 중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1	1.23	1	5
A4	4. 한국 대학의 학위를 따면 중국내 지위가	3.20	1.17	1	5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2) '문화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B항목)

문화적 요인의 경우 3가지를 질문하였다. '한국 문화(음식, 드라마, 음악등 한류)를 좋아했다.'의 평균은 3.30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의 항목이 3.29로 나타났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의 평균은 3.25로 나타났다.

<표 4-2> '문화적 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B1	1. 한국 문화(음식, 드라마, 음악등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30	1.17	1	5
B2	2.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9	1.13	1	5
B3	3.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5	1.15	1	5

3) '가족과 친구요인' 설문분석 결과(C항목)

가족과 친구요인의 경우 4가지를 질문하였다.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다.'의 평균은 3.52로 가장 높았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라고 요청했다.'의 항목이 평균은 3.21로 나타났으며, '중국학교와 한국학교가 교류협력이 있어 선생님의 권유로 교환학생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의 평균은 3.27로 나타났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의 평균은 3.20으로 나타났다.

<표 4-3> '가족과 친구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C1	1.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한국유학을 선택하	3.52	1.12	1	5

	있습니까?				
C2	2.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라고 요청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1	1.23	1	5
C3	3. 중국학교와 한국학교가 교류협력이 있어 선생님의 권유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7	1.25	1	5
C4	4.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0	1.33	1	5

4) '유학 의지 동기요인' 설문분석 결과(D항목)

유학 의지 동기요인의 경우 5가지를 질문하였다.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의 평균은 3.63으로 가장 높았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한다.'의 항목이 평균은 3.59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의 평균은 3.51로 나타났다. '독립심을 기르고 싶다.'의 평균은 3.48로 나타났다.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할 수 있다.'의 평균은 3.36으로 나타났다.

<표 4-4> '유학의지동기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D1	1.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51	1.11	1	5
D2	2. 독립심을 기르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48	1.15	1	5
D3	3.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63	1.13	1	5
D4	4.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59	1.13	1	5
D5	5.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36	1.17	1	5

5) '교육의 질요인' 설문분석 결과(E항목)

교육의 질 요인의 경우 5가지를 질문하였다. '유학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원화 되었다.'의 평균은 3.56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의 교육의 교사진의 자질

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다.'하고 '한국 대학들은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두 항목이 평균은 3.52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학교의 교육시설 조건은 양호하고 종합 수준도 높다고 생각했다.'의 평균은 3.48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했다.'의 평균은 3.42로 나타났다.

<표 4-5> '교육의 질 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E1	1.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3.42	1.12	1	5
E2	2. 한국의 학교의 교육시설 조건은 양호하고 종합 수준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3.48	1.15	1	5
E3	3. 한국의 교육의 교사진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52	1.11	1	5
E4	4. 유학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원화 되어 있습니까?	3.56	1.11	1	5
E5	5. 한국 대학들은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3.52	1.17	1	5

6) '경제성 요인' 설문분석 결과(F항목)

경제성 요인의 경우 4가지를 질문하였다.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했다.'의 평균은 3.45로 가장 높았다. '생활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했다.'의 항목이 평균은 3.38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었다.'항목 과 '입학 수속은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용이했다.' 두 항목이 평균은 3.37로 나타났다.

<표 4-6> '경제성 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F1	1.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3.45	1.16	1	5
F2	2.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37	1.15	1	5

F3	3. 생활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3.38	1.19	1	5
F4	4. 입학 수속은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용이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37	1.14	1	5

7) '지리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G항목)

지리적 요인의 경우 4가지를 질문하였다. '한중 양국의 교통이 매우 편리했다.' 항목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비슷한 점이 많아 유학생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 두 항목이 평균은 3.54로 가장 높았다.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다.'의 항목이 평균은 3.48로 나타났으며, '제한 중국 유학생은 친척 방문과 구직이 더 편리했다.'의 항목이 평균은 3.25로 나타났다.

<표 4-7> '지리적 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G1	1. 한중 양국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54	1.18	1	5
G2	2.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비슷한 점이 많아 유학생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54	1.18	1	5
G3	3.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48	1.14	1	5
G4	4. 제한 중국 유학생은 친척 방문과 구직이 더 편리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5	1.18	1	5

8) '취업 요인' 설문분석 결과(H항목)

취업 요인의 경우 5가지를 질문하였다. '유학생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다.'의 평균은 3.41로 가장 높았다. '중국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의 항목이 평균은 3.34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

다.'의 평균은 3.28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취업은 더 나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의 평균은 3.27로 나타났다.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의 평균은 3.23으로 나타났다.

<표 4-8> '취업 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H1	1.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3	1.18	1	5
H2	2. 중국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34	1.13	1	5
H3	3. 한국에서의 취업은 더 나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7	1.16	1	5
H4	4.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28	1.17	1	5
H5	5. 유학생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아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3.41	1.11	1	5

제2절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 유학 동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보다 깊이 분석하기 위하여 각 통제변수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교차분석 기준은 '성별', '연령', '유학기간'의 3가지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성별기준 교차분석 결과

(1) '유학 결정 동기' 분석

<표 4-9> 유학 결정 동기와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A1	A2	A3	A4
남성	3.31	3.01	3.23	3.16
여성	3.24	3.01	3.19	3.24
합계	3.27	3.01	3.21	3.20

첫 번째 A1 질문인 '중국의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31, 여성 3.24로 남성이 여성보다 입시경쟁 때문에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A2 질문인 '중국 대학에는 관심 있는 전공이 없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01, 여성 3.01로 남성과 여성은 이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A3 질문인 '중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23, 여성 3.19로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A4 질문인 '한국 대학의 학위를 따면 중국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남성 3.16, 여성 3.24로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중국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한국 유학을 선택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화적 요인' 분석.

<표 4-10>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B1	B2	B3
남성	3.26	3.28	3.18
여성	3.34	3.30	3.30
합계	3.30	3.29	3.25

첫 번째 B1 질문인 '한국 문화(음식, 드라마, 음악등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26, 여성 3.34로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 유학 온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B2 질문인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28, 여성 3.30로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이 더 적응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B3 질문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18, 여성 3.30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국에 온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과 친구요인' 분석.

<표 4-11> 가족과 친구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C1	C2	C3	C4
남성	3.41	3.27	3.17	3.12
여성	3.62	3.15	3.36	3.27
합계	3.52	3.21	3.27	3.20

첫 번째 C1 질문인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41, 여성 3.62로 여성은 부모의 격려로 인해 남성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2 질문인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라고 요청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27, 여성 3.15로 친구 때문에 한국에 유학 온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C3 질문인 '중국학교와 한국학교가 교류협력이 있어 선생님의 권유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17, 여성 3.36로 선생님의 권유로 한국에 온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C4 질문인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12, 여성 3.27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유학 의지 동기요인' 분석.

<표 4-12> 유학 의지 동기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D1	D2	D3	D4	D5
남성	3.33	3.31	3.41	3.43	3.21
여성	3.65	3.63	3.81	3.72	3.48
합계	3.51	3.48	3.63	3.59	3.36

첫 번째 D1 질문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33, 여성 3.65로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 유학 온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D2 질문인 '독립심을 기르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31, 여성 3.63로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 한국에 유학 온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D3 질문인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41, 여성 3.81로 학위를 따기 위해 한국에 온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D4 질문인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43, 여성 3.72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싶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D5 질문인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 하였습니다니까?' 질문에 남성 3.21, 여성 3.48로 좋아하는 전공을 배우려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교육의 질요인' 분석.

<표 4-13> 교육의 질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E1	E2	E3	E4	E5
남성	3.36	3.44	3.44	3.51	3.45
여성	3.46	3.51	3.57	3.59	3.58
합계	3.42	3.48	3.52	3.56	3.52

첫 번째 E1 질문인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남성 3.36, 여성 3.46로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다는 알 수 있다.

두 번째 E2 질문인 '한국의 학교의 교육시설 조건은 양호하고 종합 수준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남성 3.44, 여성 3.51로 한국 학교의 교육시설 여건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E3 질문인 '한국의 교육의 교사진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남성 3.44, 여성 3.57로 한국 교육 교사들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E4 질문인 '유학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원화 되어 있습니까?' 질문에 남성 3.51, 여성 3.59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학생의 교육 프로그램 다원화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E5 질문인 '한국 대학들은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남성 3.45, 여성 3.58로 한국 대학의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감하는 것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소질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경제성 요인' 분석.

<표 4-14> 경제성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F1	F2	F3	F4
남성	3.28	3.33	3.28	3.25
여성	3.59	3.40	3.46	3.48
합계	3.45	3.37	3.38	3.37

첫 번째 F1 질문인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남성 3.28, 여성 3.59로 여성이 남성보다 등록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F2 질문인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33, 여성 3.40로 외국인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한국에 유학 온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F3 질문인 '생활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남성 3.28, 여성 3.46로 낮은 생활비 때문에 한국에 유학 온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F4 질문인 '입학 수속은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용이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25, 여성 3.48로 입학 수속이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쉽기 때문에 한국에 유학 오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지리적 요인' 분석.

<표 4-15> 지리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G1	G2	G3	G4
남성	3.44	3.42	3.43	3.21
여성	3.61	3.64	3.53	3.29
합계	3.54	3.54	3.48	3.25

첫 번째 G1 질문인 '한중 양국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

습니까?' 질문에 남성 3.44, 여성 3.61로 한·중 양국의 교통 편의성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G2 질문인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비슷한 점이 많아 유학생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42, 여성 3.64로 유학생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G3 질문인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43, 여성 3.53로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덕분에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G4 질문인 '재한 중국 유학생은 친척 방문과 구직이 더 편리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21, 여성 3.29로 친척 방문과 취업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더 많이 유학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취업 요인' 분석.

<표 4-16> 취업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H1	H2	H3	H4	H5
남성	3.12	3.25	3.20	3.17	3.28
여성	3.32	3.42	3.33	3.38	3.52
합계	3.23	3.34	3.27	3.28	3.41

첫 번째 H1 질문인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36, 여성 3.46로 여성이 중국 내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혹은 한국에 취업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H2 질문인 '중국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44, 여성 3.51로 중국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 한국에 유학 온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H3 질문인 '한국에서의 취업은 더 나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44, 여성 3.57로 응답 결과이다. 여성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때문에 더 나은 근로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H4 질문인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51, 여성 3.59로 여성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취업 지원책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유학 오는 사람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H5 질문인 '유학생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아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남성 3.45, 여성 3.58로 여성이 한국에서 취업하면 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을 오는 사람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나이기준 교차분석 결과

(1) '유학 결정 동기' 분석.

<표 4-17> 유학 결정 동기와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A1	A2	A3	A4
20세 미만	3.21	3.27	3.28	3.26
20세 이상 - 25세 미만	3.26	2.87	3.10	3.15
25세 이상 - 30세 미만	3.36	3.04	3.31	3.27
30세 이상 - 40세 미만	3.17	2.78	3.22	3.00
40세 이상	3.33	3.00	2.67	2.67
합계	3.27	3.01	3.21	3.20

첫 번째 A1 질문인 '중국의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1,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26,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36,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17, 40세 이상은 3.33로 나타났다.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한국 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5세 이상 - 3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A2 질문인 '중국 대학에는 관심 있는 전공이 없어 한국유학을 선택하
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7,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2.87, 25세 이
상 - 30세 미만은 3.04,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2.78, 40세 이상은 3.00로 나
타났다. 중국 대학에는 관심 있는 전공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유학은 20세
이하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이하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A3 질문인 '중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8,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0,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31,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22, 40세 이상은
2.67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 30세 미만 유학생은 중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이 가장 적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A4 질문인 '한국 대학의 학위를 따면 중국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6,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5, 25세 이
상 - 30세 미만은 3.27,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00, 40세 이상은 2.67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 30세 미만 유학생은 한국 대학의 학위를 따면 중국내 지
위가 높기 때문에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유학생
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화적 요인' 분석.

<표 4-18>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B1	B2	B3
20세 미만	3.35	3.23	3.37
20세 이상 - 25세 미만	3.16	3.17	3.05
25세 이상 - 30세 미만	3.44	3.42	3.38
30세 이상 - 40세 미만	3.39	3.61	3.44
40세 이상	3.33	3.67	3.33
합계	3.30	3.29	3.25

첫 번째 B1 질문인 '한국 문화(음식, 드라마, 음악등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5,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6,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44,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39, 40세 이상은 3.33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음식, 드라마, 음악등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 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5세 이상 - 3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B2 질문인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3,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7,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42,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61, 40세 이상은 3.67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유학은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B3 질문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7,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05,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38,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44, 40세 이상은 3.33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기 때문에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과 친구요인' 분석.

<표 4-19> 가족과 친구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C1	C2	C3	C4
20세 미만	3.20	3.16	3.15	3.28
20세 이상 - 25세 미만	3.64	3.12	3.17	3.03
25세 이상 - 30세 미만	3.68	3.38	3.49	3.32
30세 이상 - 40세 미만	3.06	2.83	3.33	3.28
40세 이상	4.00	4.33	3.67	4.33
합계	3.52	3.21	3.27	3.20

첫 번째 C1 질문인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0,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64,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68,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06, 40세 이상은 4.00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2 질문인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라고 요청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16,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2,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38,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2.83, 40세 이상은 4.33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유학은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C3 질문인 '중국학교와 한국학교가 교류협력이 있어 선생님의 권유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15,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7,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49,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33, 40세 이상은 3.67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유학생은 중국학교와 한국학교가 교류협력이 있어 선생님의 권유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C4 질문인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8,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03,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32,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28, 40세 이상은 4.33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유학생은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유학 의지 동기요인' 분석.

<표 4-20> 유학 의지 동기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D1	D2	D3	D4	D5
20세 미만	3.48	3.35	3.37	3.57	3.31
20세 이상 - 25세 미만	3.47	3.53	3.67	3.53	3.27
25세 이상 - 30세 미만	3.62	3.58	3.76	3.65	3.48
30세 이상 - 40세 미만	3.33	3.17	3.72	3.67	3.44
40세 이상	3.00	3.67	3.33	3.67	4.00
합계	3.51	3.48	3.63	3.59	3.36

첫 번째 D1 질문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48,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47,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62,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33, 40세 이상은 3.00로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5세 이상 - 3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D2 질문인 '독립심을 기르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5,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53,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58,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17, 40세 이상은 3.67로 나타났다. 독립심을 기르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유학은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D3 질문인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7,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67,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76,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72, 40세 이상은 3.33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 30세 미만 유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D4 질문인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57,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53,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65,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67, 40세 이상은 3.67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 40세 미만하고 40세 이상 유학생은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하고 싶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D5 질문인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 하였습니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3.31,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27,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48,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44, 40세 이상은 4.00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유학생은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교육의 질요인' 분석.

<표 4-21> 교육의 질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E1	E2	E3	E4	E5
20세 미만	3.44	3.38	3.47	3.49	3.31
20세 이상 - 25세 미만	3.46	3.57	3.45	3.56	3.60
25세 이상 - 30세 미만	3.40	3.48	3.69	3.66	3.61
30세 이상 - 40세 미만	2.94	3.22	3.11	3.11	3.33
40세 이상	4.00	3.33	4.00	4.00	3.33
합계	3.42	3.48	3.52	3.56	3.52

첫 번째 E1 질문인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44,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46,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40,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2.94, 40세 이상은 4.00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E2 질문인 '한국의 학교의 교육시설 조건은 양호하고 종합 수준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8,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57,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48,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22, 40세 이상은 3.33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교의 교육시설 조건은 양호하고 종합 수준도 높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오는 유학은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E3 질문인 '한국의 교육의 교사진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47,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45,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69,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11, 40세 이상은 4.00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유학생은 한국의 교육의 교사진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E4 질문인 '유학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원화 되어 있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49,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56,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66,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11, 40세 이상은 4.00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 40세 미만하고 40세 이상 유학생은 유학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원화 되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E5 질문인 '한국 대학들은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1,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60,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61,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33, 40세 이상은 3.33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 30세 미만 유학생은 한국 대학들은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경제성 요인' 분석.

<표 4-22> 경제성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F1	F2	F3	F4
20세 미만	3.41	3.46	3.38	3.42
20세 이상 - 25세 미만	3.39	3.31	3.38	3.29
25세 이상 - 30세 미만	3.57	3.39	3.39	3.41
30세 이상 - 40세 미만	3.33	3.39	3.17	3.50

40세 이상	4.00	3.33	3.67	4.00
합계	3.45	3.37	3.38	3.37

첫 번째 F1 질문인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41,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39,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57,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33, 40세 이상은 4.00로 나타났다.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F2 질문인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46,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31,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39,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39, 40세 이상은 3.33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에 오는 유학은 2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F3 질문인 '생활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8,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38,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39,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17, 40세 이상은 3.67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유학생은 생활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F4 질문인 '입학 수속은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용이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42,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29,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41,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50, 40세 이상은 4.00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유학생은 입학 수속은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용이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지리적 요인' 분석.

<표 4-23> 지리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G1	G2	G3	G4
20세 미만	3.26	3.31	3.48	3.30
20세 이상 - 25세 미만	3.65	3.63	3.46	3.29
25세 이상 - 30세 미만	3.59	3.56	3.50	3.19
30세 이상 - 40세 미만	3.67	3.67	3.72	3.17
40세 이상	3.00	3.67	3.00	3.00
합계	3.54	3.54	3.48	3.25

첫 번째 G1 질문인 '한중 양국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6,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65,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59,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67, 40세 이상은 3.00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G2 질문인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비슷한 점이 많아 유학생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1,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63,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56,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67, 40세 이상은 3.67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비슷한 점이 많아 유학생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한국에 오는 유학은 30세 이상 - 40세 미만과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G3 질문인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48,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46,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50,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72, 40세 이상은 3.00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은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

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G4 질문인 '재한 중국 유학생은 친척 방문과 구직이 더 편리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0,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29,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19,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17, 40세 이상은 3.00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유학생은 '재한 중국 유학생은 친척 방문과 구직이 더 편리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취업 요인' 분석.

<표 4-24> 취업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H1	H2	H3	H4	H5
20세 미만	3.23	3.22	3.16	3.23	3.33
20세 이상 - 25세 미만	3.15	3.39	3.19	3.23	3.33
25세 이상 - 30세 미만	3.37	3.41	3.47	3.39	3.60
30세 이상 - 40세 미만	2.94	3.06	3.22	3.28	3.22
40세 이상	3.33	3.33	3.67	3.67	4.00
합계	3.23	3.34	3.27	3.28	3.41

첫 번째 H1 질문인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3,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5,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37,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2.94, 40세 이상은 3.33로 나타났다.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5세 이상 - 3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H2 질문인 '중국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2,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39,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41,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06, 40세 이상은 3.33로

나타났다. 중국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유학은 25세 이상 - 3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H3 질문인 '한국에서의 취업은 더 나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16,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9,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47,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22, 40세 이상은 3.67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유학생은 한국에서의 취업은 더 나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H4 질문인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23,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23,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39,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28, 40세 이상은 3.67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유학생은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과 20세 이상 - 25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H5 질문인 '유학생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아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3.33,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33,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60, 30세 이상 - 40세 미만은 3.22, 40세 이상은 4.00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유학생은 유학생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아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 40세 미만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학기간기준 교차분석 결과

(1) '유학 결정 동기' 분석.

<표 4-25> 유학 결정 동기와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A1	A2	A3	A4
1년 이하	3.04	3.07	3.19	3.10

1-3년	3.32	3.12	3.32	3.31
3-5년	3.55	2.76	3.13	3.32
5-10년	3.51	2.69	2.96	3.00
합계	3.27	3.01	3.21	3.20

첫 번째 A1 질문인 '중국의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04, 1-3년은 3.32, 3-5년은 3.55, 5-10년은 3.51로 나타났다.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한국 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3-5년의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년 이하의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A2 질문인 '중국 대학에는 관심 있는 전공이 없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07, 1-3년은 3.12, 3-5년은 2.76, 5-10년은 2.69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에는 관심 있는 전공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1-3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5-10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A3 질문인 '중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19, 1-3년은 3.32, 3-5년은 3.13, 5-10년은 2.96로 나타났다. 1-3년 유학생은 중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5-10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A4 질문인 '한국 대학의 학위를 따면 중국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10, 1-3년은 3.31, 3-5년은 3.32, 5-10년은 3.00로 나타났다. 3-5년 유학생은 한국 대학의 학위를 따면 중국내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5-10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화적 요인' 분석.

<표 4-26>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B1	B2	B3
1년 이하	3.43	3.53	3.33
1-3년	3.18	3.09	3.23

3-5년	3.26	3.29	3.34
5-10년	3.38	3.33	2.98
합계	3.30	3.29	3.25

첫 번째 B1 질문인 '한국 문화(음식, 드라마, 음악등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43, 1-3년은 3.18, 3-5년은 3.26, 5-10년은 3.38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음식, 드라마, 음악등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 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B2 질문인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53, 1-3년은 3.09, 3-5년은 3.29, 5-10년은 3.33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B3 질문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3, 1-3년은 3.23, 3-5년은 3.34, 5-10년은 2.98로 나타났다. 3-5년의 유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기 때문에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5-10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과 친구요인' 분석.

<표 4-27> 가족과 친구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C1	C2	C3	C4
1년 이하	3.40	3.36	3.30	3.37
1-3년	3.47	3.30	3.36	3.36
3-5년	3.76	2.84	3.11	2.55
5-10년	3.84	2.78	3.04	2.78
합계	3.52	3.21	3.27	3.20

첫 번째 C1 질문인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

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40, 1-3년은 3.47, 3-5년은 3.76, 5-10년은 3.84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5-10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2 질문인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라고 요청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6, 1-3년은 3.30, 3-5년은 2.84, 5-10년은 2.78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5-10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C3 질문인 '중국학교와 한국학교가 교류협력이 있어 선생님의 권유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0, 1-3년은 3.36, 3-5년은 3.11, 5-10년은 3.04로 나타났다. 1-3년 유학생은 중국학교와 한국학교가 교류협력이 있어 선생님의 권유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5-10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C4 질문인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7, 1-3년은 3.36, 3-5년은 2.55, 5-10년은 2.78로 나타났다. 1년 이하 유학생은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3-5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유학 의지 동기요인' 분석.

<표 4-28> 유학 의지 동기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D1	D2	D3	D4	D5
1년 이하	3.44	3.38	3.62	3.54	3.37
1-3년	3.38	3.36	3.37	3.44	3.27
3-5년	3.92	3.92	4.16	4.00	3.50
5-10년	3.78	3.82	4.07	3.84	3.51
합계	3.51	3.48	3.63	3.59	3.36

첫 번째 D1 질문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44, 1-3년은 3.38, 3-5년은 3.92, 5-10년은 3.78로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3-5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D2 질문인 '독립심을 기르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8, 1-3년은 3.36, 3-5년은 3.92, 5-10년은 3.82로 나타났다. 독립심을 기르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유학은 3-5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D3 질문인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62, 1-3년은 3.37, 3-5년은 4.16, 5-10년은 4.07로 나타났다. 3-5년의 유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D4 질문인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54, 1-3년은 3.44, 3-5년은 4.00, 5-10년은 3.84로 나타났다. 3-5년 유학생은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하고 싶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D5 질문인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7, 1-3년은 3.27, 3-5년은 3.50, 5-10년은 3.51로 나타났다. 5-10년의 유학생은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교육의 필요인' 분석.

<표 4-29> 교육의 필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E1	E2	E3	E4	E5
1년 이하	3.28	3.40	3.36	3.49	3.42
1-3년	3.38	3.36	3.50	3.44	3.42

3-5년	3.71	3.79	3.79	3.92	3.87
5-10년	3.67	3.82	3.76	3.82	3.84
합계	3.42	3.48	3.52	3.56	3.52

첫 번째 E1 질문인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28, 1-3년은 3.38, 3-5년은 3.71, 5-10년은 3.67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3-5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E2 질문인 '한국의 학교의 교육시설 조건은 양호하고 종합 수준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40, 1-3년은 3.36, 3-5년은 3.79, 5-10년은 3.82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교의 교육시설 조건은 양호하고 종합 수준도 높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오는 5-10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E3 질문인 '한국의 교육의 교사진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6, 1-3년은 3.50, 3-5년은 3.79, 5-10년은 3.76로 나타났다. 3-5년 유학생은 한국의 교육의 교사진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E4 질문인 '유학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원화 되어 있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49, 1-3년은 3.44, 3-5년은 3.92, 5-10년은 3.82로 나타났다. 3-5년은 유학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원화 되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E5 질문인 '한국 대학들은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42, 1-3년은 3.42, 3-5년은 3.87, 5-10년은 3.84로 나타났다. 3-5년 유학생은 한국 대학들은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년 이하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경제성 요인' 분석.

<표 4-30> 경제성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F1	F2	F3	F4
1년 이하	3.26	3.33	3.43	3.31
1-3년	3.44	3.39	3.34	3.38
3-5년	3.89	3.66	3.55	3.55
5-10년	3.62	3.16	3.22	3.40
합계	3.45	3.37	3.38	3.37

첫 번째 F1 질문인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26, 1-3년은 3.44, 3-5년은 3.89, 5-10년은 3.62로 나타났다.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3-5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F2 질문인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3, 1-3년은 3.39, 3-5년은 3.66, 5-10년은 3.16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에 오는 3-5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5-10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F3 질문인 '생활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43, 1-3년은 3.34, 3-5년은 3.55, 5-10년은 3.22로 나타났다. 3-5년 유학생은 생활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F4 질문인 '입학 수속은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용이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1, 1-3년은 3.38, 3-5년은 3.55, 5-10년은 3.40로 나타났다. 3-5년 유학생은 입학 수속은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용이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지리적 요인' 분석.

<표 4-31> 지리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G1	G2	G3	G4
1년 이하	3.54	3.69	3.43	3.30
1-3년	3.31	3.26	3.34	3.19
3-5년	4.03	4.00	3.97	3.42
5-10년	3.87	3.69	3.71	3.20
합계	3.54	3.54	3.48	3.25

첫 번째 G1 질문인 '한중 양국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셨습니다.' 질문에 1년 이하는 3.54, 1-3년은 3.31, 3-5년은 4.03, 5-10년은 3.87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3-5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G2 질문인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비슷한 점이 많아 유학생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셨습니다.' 질문에 1년 이하는 3.69, 1-3년은 3.26, 3-5년은 4.00, 5-10년은 3.69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비슷한 점이 많아 유학생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한국에 오는 3-5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G3 질문인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셨습니다.' 질문에 1년 이하는 3.43, 1-3년은 3.34, 3-5년은 3.97, 5-10년은 3.71로 나타났다. 3-5년 유학생이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G4 질문인 '제한 중국 유학생은 친척 방문과 구직이 더 편리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셨습니다.' 질문에 1년 이하는 3.30, 1-3년은 3.19, 3-5년은 3.42, 5-10년은 3.20로 나타났다. 3-5년 유학생은 '제한 중국 유학생은 친척

방문과 구직이 더 편리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취업 요인' 분석.

<표 4-32> 취업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기준교차분석 결과

	H1	H2	H3	H4	H5
1년 이하	3.31	3.45	3.28	3.31	3.46
1-3년	3.18	3.24	3.24	3.28	3.30
3-5년	3.24	3.47	3.21	3.18	3.47
5-10년	3.16	3.29	3.42	3.31	3.62
합계	3.23	3.34	3.27	3.28	3.41

첫 번째 H1 질문인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1, 1-3년은 3.18, 3-5년은 3.24, 5-10년은 3.16로 나타났다.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1년 이하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5-10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H2 질문인 '중국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45, 1-3년은 3.24, 3-5년은 3.47, 5-10년은 3.29로 나타났다. 중국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3-5년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H3 질문인 '한국에서의 취업은 더 나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28, 1-3년은 3.24, 3-5년은 3.21, 5-10년은 3.42로 나타났다. 5-10년 유학생은 한국에서의 취업은 더 나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3-5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H4 질문인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31, 1-3년은 3.28, 3-5년은 3.18, 5-10년은 3.31로 나타났다. 5-10년 유학생은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3-5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H5 질문인 '유학생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아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에 1년 이하는 3.46, 1-3년은 3.30, 3-5년은 3.47, 5-10년은 3.62로 나타났다. 5-10년 유학생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아 한국유학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1-3년 유학생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 모형의 신뢰도와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신뢰성 검증(reliability)을 실시하였다. 내적 신뢰성 검증은 동일 개념에 의한 측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할 경우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의알파(Chronbach's α)계수를 신뢰성 분석에 활용하는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0.60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Chronbach's α 값의 경우, 유학 결정 동기는 0.827, 문화적 요인 0.810, 가족과 친구 요인 0.782, 유학 의지 요인 0.886, 교육의 질 요인 0.916, 경제적 요인 0.877, 지리적 요인 0.888, 취업 요인 0.892로 모든 변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신뢰성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요인	Chronbach's α
종속변수	유학 결정 동기(4문항)	0.827
독립변수	문화적 요인(3문항)	0.810
	가족과 친구 요인(4문항)	0.782
	유학 의지 요인(5문항)	0.886
	교육의 질 요인(5문항)	0.916
	경제적 요인(4문항)	0.877
	지리적 요인(4문항)	0.888
	취업 요인(5문항)	0.892

2)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모형 및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고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되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 베리

맥스 회전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겐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0.5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의 활용한 변수들에 대한 KMO 값은 0.940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34>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교육 요인	의지 요인	취업 요인	지리 요인	경제 요인	동기 요인	가족 요인	문화 요인
교육요인4	0.806	0.150	0.212	0.162	0.104	0.091	-0.015	0.013
교육요인5	0.793	0.234	0.140	0.166	0.134	0.087	0.084	0.118
교육요인3	0.773	0.182	0.122	0.132	0.136	0.157	0.133	0.135
교육요인1	0.749	0.246	0.159	0.121	0.089	0.138	0.153	0.149
교육요인2	0.748	0.291	0.136	0.203	0.127	0.157	0.107	0.094
의지요인1	0.146	0.813	0.106	0.097	0.105	0.099	0.029	0.109
의지요인2	0.171	0.781	0.090	0.159	0.161	0.068	0.153	0.067
의지요인4	0.246	0.755	0.062	0.154	0.118	0.010	0.118	0.139
의지요인3	0.251	0.752	0.129	0.126	0.066	0.107	-0.014	-0.041
의지요인5	0.175	0.711	0.118	0.053	0.103	0.151	0.130	0.264
취업요인1	0.173	0.063	0.779	0.049	0.132	0.109	0.141	0.171
취업요인4	0.164	0.070	0.770	0.083	0.128	0.182	0.160	0.217
취업요인3	0.169	0.089	0.762	0.131	0.213	0.163	0.163	0.125
취업요인5	0.161	0.209	0.697	0.207	0.145	0.136	0.117	0.080
취업요인2	0.106	0.133	0.679	0.205	0.181	0.282	0.115	0.090
지리요인1	0.231	0.148	0.110	0.830	0.189	0.058	0.081	0.059
지리요인2	0.160	0.176	0.208	0.789	0.167	0.142	0.047	0.167
지리요인3	0.170	0.226	0.107	0.758	0.181	0.123	0.019	0.217
지리요인4	0.190	0.067	0.191	0.668	0.207	0.128	0.187	0.202
경제요인3	0.100	0.092	0.165	0.133	0.793	0.149	0.156	0.211
경제요인4	0.121	0.163	0.201	0.216	0.762	0.077	0.146	0.109
경제요인1	0.157	0.123	0.150	0.234	0.759	0.188	0.132	0.055
경제요인2	0.173	0.196	0.224	0.152	0.685	0.175	0.131	0.109
동기요인2	0.060	0.060	0.112	0.021	0.105	0.778	0.230	0.171
동기요인3	0.169	0.103	0.225	0.164	0.086	0.754	0.062	0.106
동기요인4	0.150	0.195	0.194	0.104	0.115	0.737	0.099	0.039
동기요인1	0.131	0.039	0.153	0.097	0.191	0.703	0.097	0.048
가족요인4	0.131	0.011	0.097	0.093	0.117	0.173	0.788	0.137
가족요인2	0.049	0.065	0.113	0.042	0.181	0.142	0.770	0.267
가족요인3	0.040	0.184	0.255	0.055	0.198	0.114	0.682	0.064
가족요인1	0.305	0.218	0.315	0.152	0.018	0.094	0.515	-0.084
문화요인2	0.160	0.201	0.176	0.226	0.144	0.102	0.084	0.731
문화요인3	0.177	0.136	0.176	0.183	0.106	0.186	0.184	0.721
문화요인1	0.072	0.132	0.247	0.176	0.196	0.091	0.172	0.710
고유값	3.796	3.658	3.580	2.989	2.890	2.789	2.428	2.170
분산비율	11.164	10.759	10.531	8.792	8.500	8.202	7.142	6.381
누적분산	11.164	21.924	32.454	41.247	49.746	57.948	65.090	71.471

KMO=0.940 Bartlett=7315.950 p=0.000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778-0.703, 문화요인은 0.731-0.710, 가족요인은 0.788-0.515, 의지요인은 0.813-0.711, 교육요인은 0.806-0.748, 경제요인은 0.793-0.685, 지리요인은 0.830-0.668, 취업요인은 0.779-0.679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유학 결정 동기 요인, 문화적 요인, 가족과 친구 요인, 유학 의지 요인, 교육의 질 요인, 경제적 요인, 지리적 요인, 취업 요인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요인 간 상관관계수가 0.7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유학결정 동기	문화적 요인	가족과친 구 요인	유학의지 요인	교육의 질 요인	경제적 요인	지리적 요인	취업 요인
유학결 정 동기	1.000							
문화적 요인	.411**	1.000						
가족과 친구 요인	.439**	.466**	1.000					
유학 의지 요인	.338**	.426**	.363**	1.000				
교육의 질 요인	.413**	.429**	.402**	.556**	1.000			
경제적 요인	.449**	.489**	.473**	.418**	.440**	1.000		
지리적 요인	.385**	.529**	.363**	.442**	.514**	.544**	1.000	
취업 요인	.512**	.519**	.516**	.386**	.482**	.530**	.479**	1.000

주: *p<0.05, **p<0.01, ***p<0.001

2.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학 결정 동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문화적 요인, 가족과 친구 요인, 유학 의지 요인, 교육의 질 요인, 경제적 요인, 지리적 요인, 취업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유학연령, 유학기간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으며, 기준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별 기준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하고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을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4-36>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971	0.288		3.370	0.001**	
문화적 요인	0.071	0.057	0.071	1.228	0.220	
가족과 친구 요인	0.132	0.057	0.129	2.313	0.021*	
유학 의지 요인	0.057	0.058	0.055	0.978	0.329	
교육의 질 요인	0.105	0.059	0.105	1.786	0.075	
경제적 요인	0.128	0.057	0.130	2.251	0.025*	
지리적 요인	0.038	0.056	0.040	0.684	0.495	
취업 요인	0.255	0.059	0.250	4.298	0.000***	
성별	남성	0.098	0.087	0.050	1.125	0.262
결혼상태	미혼	-0.187	0.135	-0.084	-1.389	0.166
연령		-0.036	0.084	-0.032	-0.426	0.670
학력		-0.049	0.052	-0.052	-0.937	0.349
유학연령		-0.127	0.082	-0.084	-1.548	0.123
유학기간		0.017	0.050	0.017	0.335	0.738
R ²		0.369	N		355	
F		15,356	유의확률		0.000***	

주: *p<0.05, **p<0.01, ***p<0.001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증분석을 보면, 가족과 친구 요인, 경제적 요인과 취업 요인이 모두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적 동기에 영향을 주었다. 취업 요인 β값은 0.255로 가족과 친구 요인과 경제적 요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인 유학생 중 취업 요인 때문에 한국 유학을 선택한 동기가 가장 높음

을 의미하며, 기타 요인으로는 취업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과 친구 요인이 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3가지 요인도 한국 유학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요인으로는 문화적인 요인, 유학 의지 요인, 지리적 요인이 한국 유학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결과를 보면 '결혼상태', '연령', '학력', '유학연령', '성별'과 '유학 기간'은 한국 유학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성별은 '남성'을 기준변수로 사용했으며 실증분석 결과 '남성', '여성'의 유학 결정 동기수준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의 한국유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동기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향후 의사결정 또는 실천의 필요를 위해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를 파악할 필요성에 대해 중국유학생의 한국유학을 개선 또는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제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동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 및 친구 요인이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친구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유학 온 결정적 동기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래 직업 발전에 거는 기대가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문화적 요인, 유학 의지 동기 요인, 교육의 질적인 요인과 지리적 요인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온 결정적인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요소가 아니며,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적 동기 부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업상태, 유학연령과 유학기간의 모든 요인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한국 문화를 선호하며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것과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자신의 능력 향상과 독립심 함양을 위해 한국에 유학 온 것은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더 관심을 갖고 남성보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이다.교육의 질과 경제적 요인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또 한국에 유학 온 여성은 남성보다 졸업 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유학 동기별로는 25세 이상 - 30세 이하 유학생이 중국의 입학 경쟁과 중국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반면 40대 이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20

세 이상 - 25세 이하 유학생이 가장 적었다. 또 40대 이상 유학생은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유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위를 따려는 사람은 25세 이상 - 30세 이하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 유학생들은 교육에 더 신경을 쓴다. 지리적으로 30대 이상-40대 이하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25대 이상 - 30대 이하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에 더 관심이 많았다.

유학기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3-5년의 유학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5년의 유학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유학경험이 있는 유학생들은 문화·교육·경제적으로 더 뛰어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며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에 만족하고, 저렴한 소비 수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3-5년의 유학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유학 경험이 있는 유학생들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학 경험이 1-3년의 유학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적었고, 다른 유학 기간의 유학생도 전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제2절 정책 제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려면 다각적인 정책 협조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유학생 유치와 육성도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더 많은 유학생을 한국으로 유치하고, 더 나아가 한국에 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한국 유학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취업 요인은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을 위한 가장 주요한 동기로서 한국 정부의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중국 유학생을 위한 인턴십, 직업 지도, 직업 훈련을 포함한 더 많은 직업 발전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들의 한국 취업을 촉진하고, 이들에게 보다 폭넓은 직업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또 졸업 후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유학생들에게 구직지도, 직업상담, 취업기회 등을 제공한다. 기업들이 인턴십과 채용 기회를 제공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과 가족과 친구 요인도 고려해야 할 두 가지인데, 중국 유학

생들이 한국을 유학으로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프로젝트를 내놓을 수 있다. 경제적 지원 프로젝트에는 등록금 감면, 장학금, 생활수당 등이 포함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학 매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 유학생에게 가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완전한 가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학생들이 집을 떠날 때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고 한국에서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의 권유로 한국을 찾는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대학과 중국 학교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수 있고, 해당 학교를 통해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것이 더 편하고,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이다.

셋째, 위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적 요인, 유학 의지 요인, 교육의 질 요인, 지리적 요인은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국 유학생이 한국의 전통문화, 언어, 예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문화 축제와 교류 강좌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다. 언어, 문화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함하여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통합감을 향상시킨다. 또한 학술 세미나, 문화 교류 및 자원 봉사를 포함한 사회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이는 유학생들의 사교계를 넓히고 한국에서의 사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 대학의 커리큘럼 설정, 교육 품질 및 학술 자원이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국제 교육 표준을 제정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유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중국의 교통수단을 늘리고,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한국 유학 도시 보급 활동을 진행하고, 한국의 다른 도시의 특색과 강점을 소개한다. 이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지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만족도와 매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양국 간 문화·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다. 이를 통해 한·중 유학생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유학생 발전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전에 한국에서 유학한 중국

인 유학생이 현재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인지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더 많은 유학생의 한국 유학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의 결정적 동기를 조사하고, 연구 대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타당성 있는 연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빙양 (2022).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동기에 관한 문화지능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2. 부산
- 김미희 (2011). "대중국 특화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중국유학생 교육의허브화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45().
- 김지현·김계현·유정이·황매향·노경란 (2007). "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지도프로그램개발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 김형재·최욱 (2012).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9(3): 399-425.
- 김홍수·이상직 (2019).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 특성이 한국 취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분석: TOPIK 과 유학동기, 전공만족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5):187-200.
- 교육부 (2023).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 박찬운 (2009).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송유리나 (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선택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에르덴척트바이가리·김경란·석동현 (2023). "몽골 유학생의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교우관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지역과 세계>. 47(1): 49-79.
- 오수연 (2009).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 윤상일·강재식·김형재 (2011). "중국 내 한류 문화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에 관한연구." <유라시아연구>. 8(4): 43-61.
- 윤새은임 (2019). "수도권대학 베트남유학생의 유학동기 - 경기도 P대학을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4(1): 1-40.
- 이민경 (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2):

177-201.

이민희·정태연 (2008).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동기 경로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14(1): 77-99.

이윤주·이화숙·이용승 (2022). "유학생의 학업 수행과 관련한 정의적 요인 연구
의동향 분석-유학생 교육정책의 함의 모색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
72():319-361.

이은실 (2008).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유몽아 (2018). "中國人 留學生의 大學生活滿足度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석사
학위논문 公州大學校 大學院.

장암 (2012). "在韓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대학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정지심 (2011). "스위스 호텔학교 유학생의 유학동기, 교육서비스 품질평가, 대
학생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조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 싱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3.

조혁수·전경태 (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
구." <사회과학 연구>. 20(3): 193-223.

주도연 (2011). "조기유학 귀국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
학교대학원.

최영옥·이상희 (2006). "大學教育품질이 유학생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중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32(1): 79-109.

팽호낙 (2022).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영옥 (2007). "유학생 유치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허재준·김세움·노용진·오계택·Randall, W.Green·서환주 (2011).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 과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연구보고서>.

황경아·홍지아 (2018). "제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자본으로서의 취득
학위의가치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91(): 319-357.

- LUO JUNJIAN (2022). "재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ZHANG SHUXIN (2019). "재한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와 유학생생활만족도 및 구직 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ZHANG CHEN (2023). "중국 유학생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한국 석사학위 취득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ZHANG JIAZHEN (202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유학 선택요인 및 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ZOU ZHEN DONG(2009). "부산지역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2. 해외 문헌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55(1): 68-78.
- 潘昆峰·蔣承 (2015). "我国大学生留学选择影响的因素分析". <中国高教研究>.
- 孔晴·崔娟华 (2019). "中国留学生留韩动机研究". <教育教学论坛>.
- 劉 巍 (2010). "美國留學生教育的發展及啟示". <教育理論研究>. 25(3): 211-213

ABSTRACT

With the boom in studying abroad around the world, studying abroad has gradually become a broad optional learning method.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groups reflects the trend of the spread of international study abroad. As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tensified, Chinese students expanded their options to study, and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also standing out internationally. The decision to study abroad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various factors such as individual, family, society, and culture are intertwined,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hinese students, the determinants of choosing Korea as a place to study may be considered differently from other countries. As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in Korea increased, it became important to understand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well. Researching Korea's attractiveness and uniqueness as a destination to study abroad will help improve the quality of study abroad services and international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better meet the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by providing deep awareness of the motives behind their decision to study,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study abroad experience, promote mutual benefits in the field of Chinese education,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decisive motives of Chinese students to choose to study in Korea to reveal the key factors behind these groups' motivation to study abroa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reasons why Chinese students chose to study in Korea, it is possible to promote education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deepen cultur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his end, using the results of a survey of 355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otivation of Chinese students to study in Korea were empirically analyzed. As the research model, 'cultural factors', 'family and friend factors', 'motivation to study', 'education quality factors', 'economic factors', 'geographic factors', and 'employment factor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mployment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family and friend factor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motivation of Chinese students to study in Korea, and among them, employment factors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motivation of Chinese students to study in Kore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related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Keywords: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motivation for decision, Korea-China exchanges

【부록】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장옥효 학생입니다. 본 설문은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결정 동기를 분석해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설문 응답에 소요시간은 약 5분 정도이니,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신 내용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 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장 옥 효(zyx66620@gmail.com)
지도교수: 김 주 경(agelead@jejunu.ac.kr)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 ① 20세 미만
- ② 20세 이상 - 25세 미만
- ③ 25세 이상 - 30세 미만

- ④ 30세 이상 - 40세 미만 ⑤ 40세 이상

SQ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단과대학 졸업 ③ 본과대학 졸업
 ④ 대학원 석사 졸업 ⑤ 대학원 박사 졸업 ⑥ 기타

SQ4. 귀하의 결혼 상태는?

- ① 미혼 ② 결혼

SQ4-1. 결혼은 하신 경우 현재 귀하의 자녀수는?

-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3명 이상

SQ5. 귀하의 첫 유학 경험은 어느 연령대입니까?

- ① 20세 이하 ② 20-25세 ③ 25-30세 ④ 30세 이상

SQ6. 귀하는 유학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1년 이하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SQ7. 귀하의 전공은?

-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③ 공학계열
 ④ 예체능계열 ⑤ 의학/간호/수의/약학계열 ⑥ 교육계열(교육학계열)
 ⑦ 법학계열 ⑧ 경영계열 ⑨ 기타

지금부터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 관련한 귀하의 의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제시해드리는 질문을 잘 읽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Part 1. 유학 동기에 관한 항목

■ 먼저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 관련한 '유학 동기'에 관한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국의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중국 대학에는 관심 있는 전공이 없어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중국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4. 한국 대학의 학위를 따면 중국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 2. 문화적 요인에 관한 항목

■ 다음에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 관련한 '문화적 요인'에 관한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문화(음식, 드라마, 음악등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 3. 가족과 친구요인에 관한 항목

■ 다음에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 관련한 '가족과 친구요인'에 관한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라고 요청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중국학교와 한국학교가 교류협력이 있어 선생님의 권유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④

Part 4. 유학의지동기에 관한 항목

■ 다음에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 관련한 '유학의지동기'에 관한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독립심을 기르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 5. 교육의 질에 관한 항목

■ 다음에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 관련한 '교육의 질'에 관한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학교의 교육시설 조건은 양호하고 종합 수준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의 교육의 교사진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유학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원화 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한국 대학들은 교과과정과 학습모델이 유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 6. 경제성 요인에 관한 항목

■ 다음에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 관련한 '경제성 요인'에 관한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생활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입학 수속은 간단하고 비자 신청이 용이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 7. 지리적 요인에 관한 항목

■ 다음에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 관련한 '지리적 요인'에 관한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중 양국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비슷한 점이 많아 유학생살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재한 중국 유학생은 친척 방문과 구직이 더 편리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 8. 취업 요인에 관한 항목

■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 관련한 '취업 요인'에 관한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중국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서의 취업은 더 나은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에서 취업하면 많은 취업지원책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유학생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장점이 많아서 한국유학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